



지난 6월30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 창립 제56주년 기념행사'에서 강홍구 노화농협 조합장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남 농협 ‘상복’ 터졌다” 창립 56주년 각종 상 휩쓸어

강홍구 노화농협 조합장 ‘대통령 표창’ 등 영예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농협 창립 제56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을 수상했다. 2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 창립 제56주년 기념행사'에서 강홍구 노화농협 조합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강 조합장은 그동안 농업·농촌·농협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를 안았다.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농·축협과 농협은행 시군지부, 지점 등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인화단결, 사회공헌, 업무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사무소에 시상하는 종합상은 장흥 안양농협(조합장 김영중)과 강진알도축산농협(조합장 박종필), 여수원예농협(조합장 김용진)이 각각 받았다. 농협 내부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이들 사무소는 그동안 펼친 사회공헌활동과 농업인 소득증

대 활동, 업무추진능력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의 농협 직원 중에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구례 축산농협 조연호 과장대리와 전남도청 출장소 조신 과장대리는 우수직원상 수상과 함께 특별승진의 영예까지 얻게 됐다. 이와 함께 농협 전남지역본부 류용호씨를 비롯해 계곡농협 박은주, 군서농협 김경암, 산계농협 정경진, 황룡농협 김희락씨 등이 각각 농립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 유통 한우 ‘안심’...DNA 분석 모두 ‘한우’ 판정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우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남에서 유통되는 한우 쇠고기 유전자

(DNA) 정밀분석을 한 결과 100% 한우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식육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한우 쇠고기와 전국에서 가

장 성공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장흥도요시장 27개 한우고기 판매소, 한우를 급식으로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22개 도내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한우 둔감판매 및 허위표시 판매 등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했다. 축산물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규정에 따른 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식육판매업소 76건, 장흥도요시장 56건, 학교급식 5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됐다. 김상현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축산농가를 동시에 보호하고 전남의 친환경 녹색축산물 소비가 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로 Lotto 제 761회차 당첨결과 (2017년 7월 1일 추첨)

4 7 11 24 42 45 + 30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2,392,730,518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2	53,683,05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139	1,305,05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1,503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660,130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역일 연일)

서울 3.3㎡당 아파트값 2천만원 돌파...강남구 3752만원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354만원 기록

잇따른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2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서울 3.3㎡당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0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11일 1901만원을 기록한 지 7개월 만에 100만원 추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단기 급등한 데다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전, 입주 아파트 가격 고평행진

등 영향이 컸다. 실제로 이번 주 강남구 대치동 '대치 SK VIEW'와 서초구 '서초 푸르지오 써밋' 등 고가 아파트가 인주를 시작하면서 평균 매매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자치구별 가격은 강남구가 375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초구(3451만원), 송파구(2617만원), 용산구(2596만원), 양천구(2096만원), 성동구(2046만원) 등도 서울 평균가격보다 높았다. 반면 2000만원 이하인 자치구는

마포구(1987만원), 강동구(1987만원), 광진구(1934만원), 종로구(1919만원), 중구(1864만원), 동작구(1726만원), 영등포구(1787만원), 강서구(1578만원), 서대문구(1523만원) 등이다. 서울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354만원을 기록했다.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격도 강남구(2033만원)가 가장 비쌌다. 서초구(2012만원)도 2000만원을 넘어섰다. 송파구(1617만원)와 용산구(1570만원), 마포구(1525만원), 성동구(1522만원)를 제외한 자치구들은 1500만원을 밑돌았다.



제습기 부르는 장마 장마전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일 서울 한 백화점 가전제품 매장에서 고객이 제습기 등 여름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 문 닫으면 폐쇄 2달전 고객에게 통지해야”

금융권, 은행권 점포 통폐합 행정지도 연말까지 시행

이달부터 은행들은 지점을 문닫을 경우 폐쇄 2개월 전부터 최소 2회 이상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를 3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점포 폐쇄 건수가 일시적으

로 크게 증가해 한시적인 행정지도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1분기 말 8019개로 정점을 기록했던 2012년 말(8663개) 대비 644개(11.4%) 감소했다. 행정지도에는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고객 피해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은 고객에게 폐쇄 일로부

터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각각 1회 이상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은행 홈페이지와 점포 안내문 등을 통해 점포 폐쇄 시점과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가 없거나, 단기간에 여러 점포를 통폐합할 경우에는 폐쇄 전 연장 영업을 하는 등 고객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재해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안전**을...

바로 지금 **"안전보금자리"**를 지어주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